“리뉴얼로 매장 경쟁력 강화”…소비유출 막아라

한은 조사, 온라인 카드지출 98% 역외 소비…지난해부터 새단장
광주에 첫 창고형 할인점…주류 총망라 ‘보틀 벙커’ 2호점 입점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민들이 대면 소비 대신 온라인 쇼핑을 늘리면서 광주·전남 유통가가 역풍을 맞았다.

광주·전남 지역 대형 유통업계는 새로운 유형의 매장으로 탈바꿈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나서고 있다.

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문제철 과장과 김미주 과장이 하나·신한카드 자료를 기반으로 ‘광주·전남 온라인 쇼핑 역외소비 추이’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3분기 기준 지역민들의 온라인 소비지출 중 가맹점이 광주·전남 외 지역이었던 비중은 97.8%에 달했다.

지역민들이 온라인에서 카드로 1000만원을 썼다면 978만원은 광주·전남 외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말이다.

온라인 역외 소비 비중은 2020년 3분기 85.9% 이후 4분기 87.2%, 2021년 1분기 91.4%, 2분기 97.9%, 3분기 97.8% 등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탔다.

지난해 3분기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온라인 소비지출(하나·신한카드)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지난 2019년보다 20.5% 증가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 기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광주·전남지역 온라인 소비의 역외유출은 지역내 서비스업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대형 유통업계는 온라인 역외소비에 대응하기 위해 매장을 새단장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다.

호남지역 첫 롯데마트 점포인 롯데마트 상무점은 개점 22년 만에 광주·전남 첫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거듭난다.

롯데마트는 ‘빅마켓’이 아닌 ‘롯데마트 맥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호남에서 첫 창고형 할인점 사업을 벌인다.

오는 19일 전주 송천점을 시작으로 21일 광주 상무점, 27일 목포점이 이달 차례로 문을 연다.

이들 매장은 지난해 말 영업을 종료하고 개선공사를 추진해왔다.

영업면적 1만3223㎡(4000평) 규모인 ‘맥스 상무점’에서는 국내·외 3000가지 상품을 국내 최저가격 수준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코스트코 등이 운영해온 유료 회원제가 아닌 고객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맥스 상무점에는 지난 연말 제타플렉스(롯데마트 서울 잠실점)이 야심차게 선보인 주류매장 ‘보틀벙커’ 2호점이 들어선다.

‘와인과 위스키 성지’로 자리잡은 잠실 보틀벙커는 사흘 만에 6억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신규 출점 대신 기존 점포를 탈바꿈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롯데마트 여수점은 백화점·아울렛과 결합한 상권 특화형 ‘롯데몰 여수점’으로 문을 열었다. 2020년 이마트 광주점을 시작으로 올해 개점 15주년을 맞은 봉선점도 지난해 개편을 마쳤다.

호남권을 기반으로 한 식자재 유통기업 ㈜다담리테일은 2015년 6월 광주에서 처음 문 연 1983㎡ 규모 다담식자재마트 일곡점을 6년 만에 리뉴얼하며 가정간편식(밀키트)과 신선식품, 세계 식료품 부문을 강화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지난해 ‘프리미엄 식품관’ ‘프리미엄 생활 전문관’ 등을 선보이며 11년 만의 개선공사를 마무리했다.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은 남성매장 개편을 추진했고, 롯데아울렛 수완점은 3000㎡(900평) 규모 ‘키즈&패밀리 전문관’을 새로 선보였다.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해 11월 롯데마트 첨단점이 도시철도 2호선이 들어서는 호재를 앞두고 새단장을 마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광주시민에 숙박 할인

26일까지 특가 상품전 진행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이 새해를 맞아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특가 숙박 상품을 내놓았다.

홀리데이 인은 오는 26일까지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해피 뉴 이어 광주’ 특가 상품전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예약은 26일까지 할 수 있으며, 숙박 기간은 27일까지다.

기존 숙박가보다 대폭 할인한 일~목요일 9만8000원, 금~토요일 10만3000원(세금·봉사료 포함)에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투숙 기간 동안 실내 수영장 이용과 와이파이가 제공되며 온탕(스파) 이용을 10% 할인해준다.

수속 때 호텔 공식 카카오톡 친구 추가 화면과 거주 지역이 확인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홀리데이 인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광주 지역민들이 한해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유통가, 지역 특색있는 선물로 소비자 사로 잡는다

광주신세계, 전남도 명인전 등
비대면 라이브 판매도 병행

광주·전남 유통가들이 저마다 특색을 내세운 설 선물로 고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 동안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신세계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현지 바이어’(구매 담당자)들은 신선식품 선물 대부분을 지역 특산물로 채웠다.

선물 본 판매 기간동안 본관 1층 행사장에서는 ‘전남도 명인 기프트’ 특집전이 진행된다.

장흥 햇콩마루 프리미엄 세트, 피아골 전통장류, 누리보듬 송하 세트 등 장성·나주·장흥·함평·완도지역 생산자들과 직거래한 상품을 만날 수 있다.

농산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남도 6차산업 식품들도 행사장에서 만날 수 있다.

광주신세계는 올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20만원으로 늘면서 한우·굴비 ‘프리미엄’ 꾸러미 물량을 전년보다 20% 늘렸다. 전국 유명 맛집과 특급호텔과 협업한 가정간편식 상품도 확대했다. 1인 가구를 겨냥한 1㎏ 정육세트, 6개 짜리 과일 세트 등도 눈에 띈다.

ESG 경영 본격화에 나선 신세계는 올해 설 명절에도 친환경 선물 포장을 선보인다.

종이와 마 소재를 활용한 과일 바구니와 콩기름을 바른 재생용지 상자, 친환경 축산물 보냉가방 등을 대폭 확대했다.

12일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친환경 소재 과일바구니와 다양한 농축산물 선물 꾸러미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광주신세계는 생방송 판매(라이브 방송)도 병행한다. 오는 20일에는 홍삼과 비타민 세트 등을 선보인다.

광주지역 이마트들은 명절 인기 선물로 떠오른 안마용품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 3개 이마트들의 지난해 명절(설·추석) 안마의자 매출은 전년보다 11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안마기 매출도 42.7% 늘었다.

설 명절(1월)과 추석(9월) 안마기와 안마의자 매출 증가율은 연평균 증가율의 2배가 넘는다. 안마기·안마의자의 명절 판매량은 전체의 27%를 차지한다. 가장 판매량이 적었던 6월 비중(5.4%) 보다 5배 가량 높은 수치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전체 안마기 매출에서 소형 안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4.8%), 2020년(5.7%)에 이어 지난해 6.3%로 증가했다.

이마트는 유명 브랜드 안마의자를 행사카드로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36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롯데온은 오는 16일까지 홍삼·인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온 마음 설’ 행사를 진행한다.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일주일 동안 롯데온의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4%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통시장 설 차례상 비용 26만4400원

대형마트 36만3500원
쌀·사과 등 일부 가격 하락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26만4442원으로 예측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1일 광주 양동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 17곳과 대형 유통업체 27곳에서 설 성수품 2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차림 비용은 지난해 설보다 0.4% 오른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장을 볼 경우 차림 비용은 작년보다 0.2% 오른 36만3511원으로 파악됐다. 전통시장보다 10만원 정도 더 비싸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해 생산량이 증가한 쌀과 산지 재고량이 많은 사과, 배 등 과일은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지난해 늦장마로 수확이 원활하지 않았던 대추, 도라지는 1년 전보다 각각 41.3%, 6.7% 올랐다. 가정 내 수요가 증가한 소고기는 값이 2.9~8.5% 가량 올랐다.

전체 28개 조사 품목 중 19개 품목은 전통시장에서 더 저렴했다. 다만 쌀, 사과, 배 등 일부는 대형유통업체보다 전통시장에서 더 비쌌다.

정부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사과, 배, 쇠고기 등 10대 품목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공급한다. 또한 농축산물 소비쿠폰 한도를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고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성수품 할인 기획전을 추진한다.

김권형 aT 수급관리처장은 “합리적인 소비를 돕기 위해 19일과 26일 두 차례 더 설 성수품 구입 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알뜰 소비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성수품 구매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전통 차례상 차림비용’과 더불어 ‘간소화 차례상 차림비용’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관련 자료는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kamis.or.kr)나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에 직거래장터 등 오프라인 장터 정보는 바로정보 홈페이지(baroinfo.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시장 설 차례상 구입비용

주재료	단위	1월11일(원)	등락률(%)
흰떡	1kg	5,873	0.6
쇠고기(양지)	300g	14,340	8.5
쇠고기(우둔)	1.8kg	80,294	2.9
동태살	1kg	9,986	-6.9
계란	10개	2,124	-3.2
무	100g	109	-13
다시마	10g	167	7.6
시금치	400g	1,994	-6.7
고사리	400g	5,409	7.8
도라지	400g	5,282	6.7
쌀	1.2kg	3,480	-2.8
배추	300g	399	45
대추	400g	8,235	41.3
배	5개	17,565	-18.9
사과	5개	13,703	-16.1
총 비용		264,442	0.4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청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